4 종합

경희도전 컨퍼런스 지속 가능 사회 토론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경희도전 국제 컨퍼런스

【서울】지난 28일 오비스홀 111호 강의실에서 정경대학, 글로벌 통상·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경희도전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기후 변화, 전쟁 위기, 정치 양극화,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위기 요소에 주목해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위기: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갈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희 도전과제'의 일 환으로 '한국을 구해라!: 인구 위기, 발상의 전환'에 이어지는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호주 맥 쿼리대 데이비드 트로스비 교수, 서 울대 강원택 교수, 네덜란드 에라스 무스대 원윤선 선임연구원의 발표 가 있었다. 2부에서는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 자유대 아르요 클라머 교 수, 경희대 윤성이 교수, 일본 세쓰 난대 고토 카즈코 교수가 모여 토론 을 진행했다.

트로스비 교수는 '글로벌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 인권의 본질 회복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트로비스 교수는 "이상기후문제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에너



'경희도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르요 클라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유경 기자)

지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은 대부분 문화적인 차 이에서 출발한다"며 "문화적 다양 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인 간으로서 기본적 가치 추구로 상호 작용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는 '한 국 민주주의의 변화: 새로운 도전

5

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 제3의 물결을 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국가이지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문제를 맞이했다"며 "한국은 보복의 정치 성격이 강해 정치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윤선 선임연구원은 '유럽 도시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 연구원은 "최근 유럽 사회의 위기 대응책으로 지속가능성과 도시 회복탄력성에 주목해야한다"며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사례를 서울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2부는 고토 카즈코 교수, 윤성이 교수, 아르요 클라머 교수가 토론자 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윤 교 수는 한국 정치에 대해 "부르주아 등 정치 기반을 위해 싸우는 외국 정당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정 치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형태가 벌 어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엘리트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으로 권력을 분권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교수 는 "지방 분권이 독과점, 독점 정치 지역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보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수정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X 경희대 제휴 이벤트

나야, 학생증~ 커피값 지원이 된다고

경희대 학생중 체크카드 커피값 지원 이벤트

경희대 캠퍼스 내 카페쿠피, 이디야 커피, 투썸플레이스, 달콤한 위로, 카페 블루포트에서 경희대 학생중 체크카드로 3천원 이상 결제(11월 한달 누적)하면 3천 하나머니 제공!

이벤트 종료 후 2024년 12월 21일 이내 3천 하나머니 제공 (4,000명 한정)

※ 하나머니 제공 전(2024.12.19 이내)까지 하나머니(앱) 서비스 가입 필수

하나머니 앱에서 확인

😙 하나은행

경품 제공

제공 : 하나은행, 하나카드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에서 2024년도 창 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최 종 선정된 학교는 우리학교와 제주 대학뿐이다.

시상식은 6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2024 산학연협력 EXPO에서 있을 예정이다. 매년 교육부와 재단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선정한다. 우리학교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 우리학교의 창업교육은 LINC 3.0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LINC 3.0 사업단 허균영 부단장은 "창업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전주기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기적창업교육프로그램은 우리학교의핵심 프로그램으로, 총 6단계의 창업 수준별 맞춤 교육이다. 단계별로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강좌, 창업캠프, 창업 실습 그리고 나아가 대학 연합 간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창업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창업직무 교육을 시행한다. 실무 중심의 직무 교육 시행 후 자격증 취득 시인사팀과 연계하여 교내 창업 직무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도 마련하고 있다. 학업 단절을 방지하고자 창업준비 휴학, 창업휴학을 마련했다. 더불어 창업현장실습 등의 창업대체학점 제 또한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 창업교육은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실시된다. 우리학교는 전국 LINC 3.0 대학을 대상으로 공유형 온라인교육 플랫폼 (Erline-Campus)을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우리학교의 특화·전문 분야인 바이오의료, 디지털 분야의 창업 강좌를 제공한다. 또한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도하고 있다. 경기도 및 용인시 등 지자체와 대학연합 간 창업캠프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창업 지식과 창업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허 부단장은 "훌륭한 창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은 창업교육의 정 점이 아닌,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창업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 지원 인원을 확보하여 우리학교 창 업이 시도에 그치지 않도록 힘써야한다"며 지속성을 강조했다.



'KHU Valley Program 창업캠프'
(사진=창업활성화센터 제공)